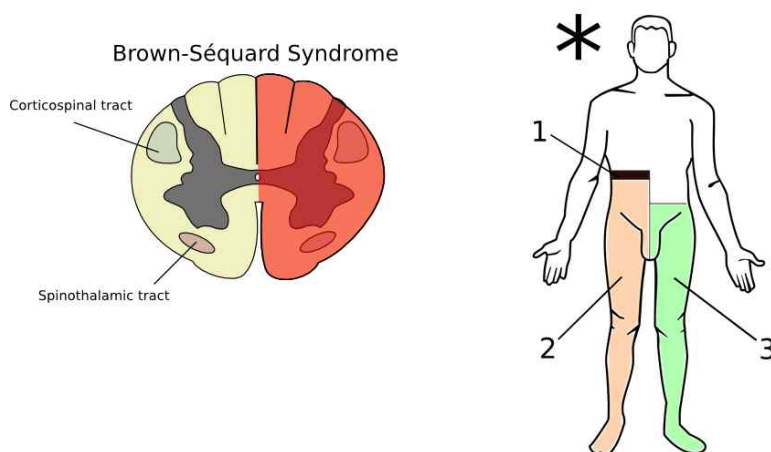


Brown-Sequard Syndrome

국립재활원 김정환

클래식한 Brown-Sequard syndrome은 척수의 hemisection에 의해 좌우 중 병변측(ipsilateral) 운동과 고유수용성 감각 및 light touch가 해당 척수 수준이하로 떨어지고, 병변 반대쪽 통증 감각이 해당 척수 수준 아래(distal)에서 떨어지는 현상이다. 병변 수준(그 distal이 아닌 병변의 척수분절)에서는 병변 쪽 모든 기능(운동, 고유수용성 감각 및 light touch, 통증까지)이 떨어지게 되며, 통증 감각이 해당 척수 수준 distal에서 떨어질 때는 1-2 척수분절 아래(distal)부터 떨어지게 된다(아래 그림의 3번).

신경섬유의 좌우가 교차하는 decussation이 dorsal column-medial lemniscus pathway 와 lateral corticospinal tract이 brainstem에 위치하는데 비해서, 통증과 온도감각을 담당하는 spinothalamic tract은 척수에서 신경섬유가 좌우 교차하기 때문에 통증과 온도감각은 반대쪽에 저하가 온다.



* Images from wikipedia.org

초기에 걷기가 힘들 때 재활 과정에서 경수 수준의 Brown-Sequard syndrome 환자는 휠체어를 미는 상지 근육의 비대칭으로 고생하지만, 하지 관절 손상에 주의하며 서서히 보행 연습을 하면 대부분 보행 예후가 좋으며, 발병 6개월까지 대부분 기능적 보행에 도달한다고 알려졌다.

(실제 강의에서는 증례를 포함함.)